

노벨문학상 '열기' 시들해졌다

올 수상자 호세 셀라 작품집 얼마나 나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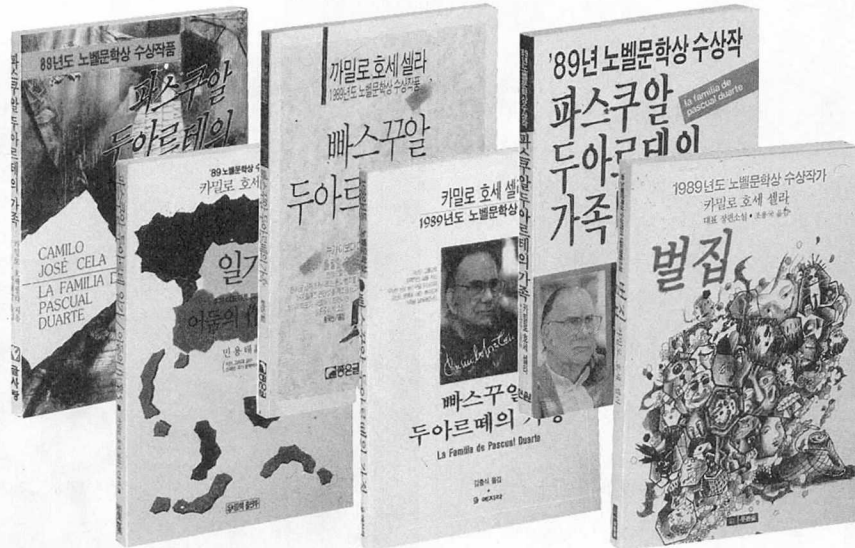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로 선정, 발표된 스페인의 소설가 카밀로 호세 셀라는 다소 색다르게, 일종의 통속적 흥미를 끌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70대의 그가 30대의 동거여인 마리아 카스타노와 함께 수상을 기뻐하고 있는 외신으로부터의 전송사진이 그렇고, 투우사·화가·배우 등의 직업을 전전했다는 그의 인생 편력이 또한 그렇다. 게다가 대단한 미식가요, 여자와 여행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니 얼핏 노벨상의 '권위'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정작 그의 '문학'은 몇몇 스페인문학 전공학자 외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매년 그레고리오 호세 셀라의 경우도 노벨상 발표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에 10종 가까운 책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작이자 출세작인 「파스쿠알 두아르테일가」가 삼영서관(박철 옮김), 동서문학출판부(민용태), 신원문화사(손관수), 예지각(김충식), 좋은글(황국산), 글사랑(권재성) 등의 출판사에서 다투어 譯刊됐고, 1951년 발표된 대표장편 「벌집」(조용국 옮김, 푸른숲)도 선을 보였다.

11월 한달간 10종 가까이 쏟아져

스웨덴 한림원에 의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이후 가장 광범하게 읽힌 소설로 형식과 소재에서 도발적이고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은 「파스쿠알...」은 평범한 시골농부를 살인마로 돌변하게 만든 사회적 조건과 가족사적 환경을 다각도로 파헤친 작품. 발표 당시(1941년)에 이미 스페인문단으로부터 "마침내 우리도 소설을 갖게 됐다"는 격찬을 받은 작품으로, 주인공 파스쿠알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처음에는 개를, 그 다음은 말을 죽이고, 자라서는 부정한 아내와 아내의 정부,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어머니마저 교살한다-를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회상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 '끔찍主義'로 명명될 만큼 냉혹하고 강렬한 문체 속에 한 개인의 야만적 獸性을 폭발케 한 실존상황과 원초적 불의를 부각시킴으로써 호세 셀라는 삶과 존재를 운명의 노리개감으로 형상화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흔히 까뮈의 「이방인」과 비교되는데, 예컨대 개의 시선에서 공포를 느껴 염종으로 개를 사살하는 파스쿠알과 태양광선 때문에 살인했다는 「이방인」의 피르소는 유사한 실존적 념세를 풍긴다.

파스쿠알의 회상은 그래서 전혀 반성과



회한의 색채를 띠지 않는다. 內戰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현실을 겪은 스페인현대사의 비극을 인간내면의 심층묘사와 초현실주의적 기법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내란으로 상처받은 스페인 국민과 사회의 공허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국내 번역본들 가운데는 출간의 '속도'에서 가장 앞선 삼영서관판이 비교적 판매에 호조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반적으로 노벨상 열기를 지필 만한 수준은 못된다는 것이 서점가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삼영서관판과 함께 동서문학 및 신원문화사판이 스페인문학 전공 교수에 의해 번역됐으며, 좋은글판은 영역분을 중역했음을 역자 서문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6개 번역본이 저마다 번역의 편차를 심하게 드러내고 있어 독자들 입장에서 판본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벌집」은 20년전의 初譯本을 재출간

호세 셀라의 네번째 작품인 「벌집」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로, 프랑코 독재치하인 1943년의 마드리드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마드리드 번두리의 한 카페를 중심무대로 하여 카페 여주인, 가난한 청년시인, 혁명적 사회주의자, 동성연애자 등 무려 160여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그들의 험벗음, 탐욕, 공포, 좌절, 증오, 속물근성 등을 정밀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작품의 등장인물 각자는 얼른 보기에 서로 연결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두를 작품의 중심부로 수렴시키는 호세 셀라의 테크닉에 힘입어 하나의 거대한 벌집처럼 조화를 이룬다. 이 벌집에서 우글거리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자상하면서도 정확하게 축약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벌집」의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조용국교수(전 외국어대 교수, 1985년 작고)의 初譯으로 1970년 출간(민중서

관)됐다가 지금까지 사장돼 왔던 것을 이번에 푸른숲에서 미망인과 계약을 맺어 재출간했다. 원래 노벨상과는 무관하게 번역되고 출간됐던 책이라 번역의 성실성이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벌집」 역시 초판 5천부 매진 이후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8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작한 노벨상 열기의 냉각은 올해의 경우에도 여전히 지속되리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다면 소개되지 못했을지 모르는 세계문학의 소중한 자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시들지 않는 노벨상의 권위가 있다. "스페인과 남미의 다른 많은 작가들 역시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호세 셀라는 "이 수상의 영광을 모든 스페인어권 문학에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철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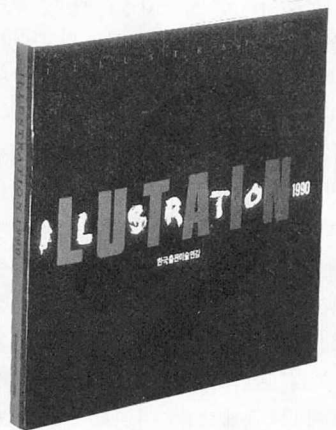
국내 최초의 출판일러스트 집대성

출판미술가협회 엮음 「한국출판미술연감」

지난해 11월 창립된 한국출판미술가협회(회장 김영주)가 최근 현역 일러스트레이터 180여 회원의 대표작을 가려 뽑은 「한국출판미술연감」을 국내 최초로 간행했다.

교과서를 비롯해 아동전집물, 단행본, 신문, 잡지, 광고 및 판촉용 카탈로그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매체에 쓰여진 일러스트작품을 고루 망라한 이 연감은 현단계 한국 출판일러스트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의가 높게 평가된다. 또한 출판계 등 일러스트의 수요자들에게는 일종의 '지상견본시'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료집으로도 크게 유용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수록작가당 한면씩을 할애해 각각의 대표작을 원색도판으로 싣고, 용도·크기·기법·제작년도 등을 일일이 밝혔다. 제약된 지면이라 작가들의 역량을 충분히 보일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역 일러스트레이터의 거의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규모의 포괄성이 그같은 아쉬움을 상쇄시켜 준다.



권말에 수록작가들의 인적 사항과 경력, 연락처 등을 따로 정리하여 수록했으며, 특히 ①1970년대 이후 발표된 일러스트관계 논문 목록 ②80년대 이후 각종 잡지 및 신문에 게재된 일러스트관계 기사색인 ③최근 5년간의 일러스트전시회 개최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동협회는 이 연감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지난달 14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가진 바 있다.

출판미술가협회 / A4변형 / 226면 / 35,000원